###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하며 "송구스럽다"에

# "朴, 반성 기미 없어" vs "많이 절제"

민주당 "법 앞에 모두 평등… 檢 명예회복 마지막 기회" 국민의당 "朴, 반성 안 해… 증거인멸 우려 더욱 가중" 바른정당 "국민에 진정성 있는 사죄 표하지 않아 유감" 정의당 "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… 불성실에 국민 허탈"

자유한국당 "朴, 절제된 언사…檢, 실체적 진실 밝혀야"

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하 며 "송구스럽다"는 간략한 메시지만 내놓 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"반성의 기미가 없다"며 일제히 유감을 나 타냈다. 박 전 대통령이 '1호 당원'인 자 유한국당은 '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많은 데 절제했다'며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.

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"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이 검찰, 특검, 헌재의 출석을 피해왔지만 이제 '민간인' 신분으로 출석한 것"이라며 "탄핵된 이후 이런 사태까지 온 데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시죄하는 태도와 진실 규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고 지적 했다.

그는 "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\_ 혐의에 대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, 잘못 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"며 "끝 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고, 검찰 수사 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"고 촉구했다. 이 어 "지난 번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강력 한 불복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검찰 조 사에서도 일관된 부인을 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"고 덧붙였다.

그러면서 "검찰 또한 이번이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"라며 "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 대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 칙하에 검찰이 엄정하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이후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도 도움이 될 것이며 탄핵국면도 수습이 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 을 통해 "박 전 대통령이 무성의한 발언 두 마디만 내놓은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 서 직위나 정치적 책무의 엄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"이라며 "반성하지 않고 있 다는 것을 여전히 드러낸 것"이라고 비판 했다.

김 대변인은 "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면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

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정치적 책무가 있다"며 "박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도외시했다"고 지적

그는 또 "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탄 핵선고에 대해 수긍한다는 메시지를 내놓 지 않고 있다"며 "그 역시 전직 대통령으 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. 증거인멸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"이라고 주 장했다.

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 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"헌정 사상 최초 로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원했건만 끝끝내 형식적 입장만을 밝힌 채 검찰청사로 사라졌다"며 "작금의 국정 농단 사태의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정 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"고 지적했다.

그는 '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"며 "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 난해 검찰 수사 및 특별검사의 소환을 받 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, 헌법재판소에 도 출석할 기회가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 음으로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실 망을 주었다. 만시지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"고 주장했다.

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 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"희대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최소한의 반 성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허탈하게 만드는 말이었다"며 "무엇이 송구스러운 지조차 없는 불성실한 모습이었다"고 비 판했다. 그는 "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 토라인 앞에서 공언한대로 성실하게 조사 에 임해야 할 것"이라며 "검찰은 특검 수 사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될 것"이라고 주문했다.

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들 4당과 달리 '전 직 대통령 예우' 운운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.

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 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"박 전 대 통령이 하실 말이 많았겠지만 오늘 굉장 히 절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"고 밝혔다.

정 원내대표는 "헌정시상 4번째 전직 대 통령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가적 비극에 참담 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"이라며 "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며 국민께 송구스럽고 성 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만큼 오 늘 검찰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그는 "다신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"며 "검찰은 어떤 외압이나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 로지 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 해야 한다"며 "국가적 품격과 국민 통합을 고려해 조사과정 전후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" 고 당부했다.

### '블랙리스트' 김기춘 4월6일 첫 재판

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(78)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재판에 유진룡(61) 전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이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(부장판사 황병헌)는 21 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"오는 4월6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 일을 진행하겠다"고 밝혔다.

첫 재판에서는 박영수(65ㆍ시법연수원 10기) 특별검 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, 김 전 실장과 조윤선 (51) 전 문체부 장관 등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처 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.

오후에는 유 전 장관과 문체부 공무원 오모씨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.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 트 작성 및 실행 과정, 김 전 실장의 지시 및 개입 여 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.

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 관련 입장을 듣고 지난 달 28일 시작해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



### 시 · 도의회의장협, 박지원 대표 방문 '지방의회 독립성 · 전문성 강화'지방자치법 개정 건의

전국시·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면담을 갖고 시.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 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.

황현 도의장 등은 건의서를 통해 "사회가 급변하고 행정역 시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으나 도의회의 일처리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"며 "지방의회의 조직.권 한,전문성이 취약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"고

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"광역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 례 제정, 예산심의, 행정사무감사 등 지자체 감시.견제 역할 을 하지만 단 한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 에 어려움이 많다"며 "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의장협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의 제.개정 을 위한 차원에서 현재 '법령의 범위 내'인 조례제정권을 확대해 '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'로 해줄 것을 건의

아울러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제 도 도입도 건의했다.

단체장이 내정한 인물에 대해 지방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 한 검증을 함으로써 보은인사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막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.

황현 도의장은 "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는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"라며 "지방의회 정착을 가 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"고 강조했다.

### '장미대선' 40여일 앞으로 … 전북 문전 성시

#### 홍준표 · 안철수 · 손학규 후보 방문··· 전북 '몫' 장미빛 공약 쏟아내

장미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 데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, 손 학규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 에 총력을 기울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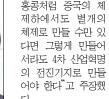
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"당을 배

척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북에서 날 배척할 이유가 없고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전 북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다"며 지지를

홍준표 후보

홍 지사는 "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판단할 때가 됐다"며 "특정정당에 몰표를 줘서 전북이 과연 뭘 얻었는지 생각해야 하다"고 말했다.

이어 "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 한민국이 희망이 될 수 있다"며 "새만금을





안철수 전 국민의당



안철수 후보

공동대표도 무주리조 트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우정연수원 개관 식에 참석해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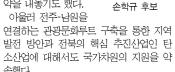
안 전 대표는 "저는 본선에서 이길 자신 이 있다. 누구보다 개혁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"며 "손학 규 전 경기지사와 박주선 국회부의장보다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다"고 주장했다.

그는 "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니면서 많 은 분을 만나 뵙겠다"며 "누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, 누가 제대로 개혁할 수

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 리겠다"고 말했다.

그는 또 현지 지역 위원장 및 시.도의원, 공무직 근로자, 노인 계층을 면담하고, 이 들을 위한 맞춤형 공





손학규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"먹거리 걱 정없는 식량주권시대를 열겠다"며 지지를 호소했다.

손 후보는 "전북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며 식량주권의 고장"이라며 "전북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'농지천하지대 본"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
이어 "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보장해 식 량주권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융합으로 먹거리 걱정없는 시대를 열겠 다"고 말했다.

손학규 후보는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 계한 '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' 프로젝 트 추진, 농생명 특화 국제금융 허브 조 성, 탄소 소재부품 4.0 프로젝트 추진 등 전북도 요구안을 반영한 전북 맞춤 공약 /안재용 기자 도 제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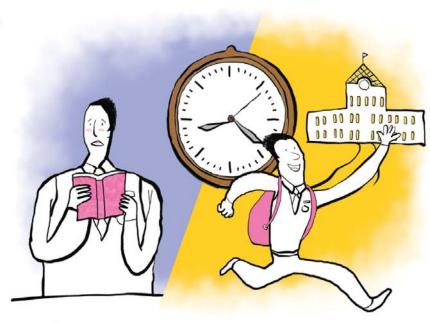
### 정동영, 임대료 '2년 5%' 법 발의

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% 범위를 '2년에 5%'로 제한하는 '민간 임대주택특별법'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

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 액을 '연5%이내에서 2년 이내 5% 이내' 로 개정함으로써 임치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, 개정 이유를 밝혔다. /안재용 기자

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\_ 두 번째 이야기







" '아침이 행복한 학교'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'보금자리'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.

## "아침의 여유!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

-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-

"달라진 모습이요?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." - 조아현 (군산남고 1학년)

"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. 아침의 여유!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." - 신혜원 (두 아이의 엄마)

"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.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,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" - 박은희 (옥구초 교사)